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얼마 전 ACC로 약칭되는 아시아문화전당 10주년 기념포럼을 일부러 찾았었다. 거기에서 오랜만에 노무현의 포효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노무현은 한국 정치사에서 독특한 캐릭터로 국가형태를 발전적으로 이끈 지도자다. 특히 노무현은 광주문화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각별한 통찰력으로 문화융성을 주도했다. ACC작공식은 노무현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때가 2006년 12월, 노무현은 광주에 ‘각별히’ 정성을 쏟았고 ACC는 문화예술교류와 연구공간으로써 광주를 아시아 문화허브로 구상했던 것이다.

광주는 애초부터 문화중심 도시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도시이다. 그런 터에 노무현의 목소리로 “창조적 문화역량을 발휘해서 지역발전을 하십시오”라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했다. ACC는 우리 광주로선 대통령 노무현이 내린 분위의 선물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ACC는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내실 또한 커진다는 것을 최근에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다.

ACC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병훈 추진단장이 보인 리더십 또한 돋보였던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지금도 이병훈 단장이 쓴 ‘아시아로 통하는 문화’란 책을 서가에 꽂아 놓고 광주의 미래가 답답할 때마다 꺼내어

노무현이 꿈꾸던 광주문화!

읽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병훈을 오늘의 광주를 문화적으로 올려세운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이후 이병훈 단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광주시 제1대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냈는데 이 또한 광주문화의 가속페달을 밟았던 시기와 연관이 된다. 그럼에도 광주의 문화적 후진성은 여전하다.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지구상을 들쭉이는 K컬처에 어떤 역할을 보태고 있는가를 물으면 그 위상은 여전히 초라하다.

K컬처는 ‘한류’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리드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인이 열광하면서 즐기는 문화생태계가 그 방향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K컬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국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K컬처가 호시절을 구가할 때 광주는 과연 무얼 했을까? 노무현의 문화적 구상이 엄정났음에도 광주의 적막강산은 이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광주는 K컬처 생산의 전진기지로 나아갔어야 했다. 이럴 때 광주시민의 한 사람이자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럽다는 생각뿐이다. 더 이상 엉거주춤하다가는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문화의 주도권마저 내놓고 방황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현대문학사에서 1930년대의 ‘시문학파’로 본격 시문학을 정립한 사람은 광산의 용아 박용철 시인인데도 강진 영광생가에 가서야 그 향기를 접할 수 있다. 담양에 소재한 한국가사문학관 해도 그렇다. 무등산자락 자미탄을 배경으로 크게 꽃피웠던 가사문학을 광주가 아닌 담양에 넘겨줌으로 담양은 이제 가사문학의 성지가 되고 있다.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당시 김종 광주문협 회장이 광주호 상류에 문학컴플렉스(복합공간)을 설계하고 추진했을 때만 해도 충효동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학적 미래는 자못 청창했었다. 당시의 계획대로만 갔더라면 계산동류로 상징되는 가사문학이나 시문화파기념관 같은 볼거리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광주의 주요 관광품목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의 유례없는 쾌거이지만 주도권은 벌써 장흥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승원문학관에도 한강의 볼거리를 집목하자는 문화기획은 기대가 자못 고조되어 장흥관산고등학교를 노벨문예창작고등학교로 개편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강작품을 보러 5·18도시 광주로 와야 하는데도 장흥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이렇듯 노상 빼앗기고만 있는 도시가 됐다. 이쯤이니 광주를 향한 노무현의 포효가 다시금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

문화제일주의를 역설한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다.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문화제국’으로 탄생시킨 셈이다. 김구 선생은 광주를 꼭 집지는 않았지만 노무현은 광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었다. 그럼에도 광주는 K컬처는 물론이고, 불만찬 지역의 문화유산마저 타지에 넘기는 수모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부끄러운 것은 정치 행정이 아니고 우리 같이 칼럼이나 쓰는 서생들 차지이니 누구부터 탓해야 할까.

현장칼럼



최강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우리는 흔히 아동들의 성장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곤 한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남들보다 빠르니 혹은 느린지로 기준을 정하고 아이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아동은 달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아동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자기만의 길을 찾아간다. 경계선 지능 아동(지능지수 IQ 71~88)은 바로 이 ‘조금 느린 걸음’을 가진 아동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학습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 또래 관계 속에서 작은 좌절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잃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들은 각자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깔이 드러나는 순간이 조금 늦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렇기에 이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재촉하는 경쟁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회의 지지와 따뜻한 시선이다.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복권기금과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조금 느리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자기 자신의 색깔대로 잘 자라갈 우리 ‘나답게 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행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너의 속도대로 걸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나답게 크는 아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가며, 과전전문가(1명의 선생님이 4명의 아동들을 돌봄)를 통해 인지, 학습, 정서, 사회성 등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 받고 있다. 이과정속에서 아동들은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손이 그림과 글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고, 말없이 뒤에 서 있던 아동들이 춤으로, 운동으로 다양한 신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일대일로 만나는 과전전문가와의 교감은 또다른 사회를 만나게 하며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우리 아동들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아동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순간은, 아동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한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변화는 아동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니다. 아동들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시선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경계선 지능은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라는 사실, 그 특성이 아동의 가능성을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편견 속에서는 아이들이 움츠러들지만, 지지 속에서는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아동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바라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모여 더 포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그 길을 열고 있다. 과전전문가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웃는 동행자로서 곁에 서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동들은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딛으며,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느려도 괜찮다, 너의 속도로 걸어라.”라는 메시지처럼, 조금 느린 아동들의 걸음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 걸음을 기다려주고 지켜봐 줄 때, 아동들은 자기만의 색으로 세상을 채우며 성장하고, 어른들의 따뜻한 동행은 그 길을 또 하나의 희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참된 가치를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광주교육을 흔드는 ‘진짜 주체’는 누구인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만 3년이다 되도록 끝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특정 인맥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셋째, 교원에게 덧씌우는 정치 프레임은 부당하다. 우리는 교육을 사유화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광주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다.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흔들기’로 매도하는 것은 구태에 불과하다.

넷째, 광주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이

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서명하고 언론에 호소하며 겨우 교육청의 대책을 이끌어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산 부족을 걱정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좌절하면서도 묵묵히 교실을 지킨 것은 교사들이었다. 현장의 절규는 외면한 채 인사 전횡과 사법 리스크로 점철된 3년, 그리고 교육적 소신을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시선들. 진정으로 광주교육을 흔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백성동·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시장직 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 숨통

광주 도심 교통에 숨통이 트였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총연장 17km 가운데 16.3km 구간의 도로가 복구됐다. 강기정 시장이 직을 걸고 약속한 사항으로, 버스를 타고 시청에서 출발해 1공구와 6공구 등을 직접 확인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다만 급호지구입구사거리, 급호시영아파트 앞, 무등시장 주변, 광주역 뒤편 등 정거장 4곳과 백운광장 일원 총연장 687m는 제외됐다. 자체의 지하 반입이 완료되는 내년 3월과 지하차도 공사 마무리되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당초 1단계 공사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굴착 과정에서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암반 증가와 지장물 다량 발견 등 지반 조건 변화로 인해 미뤄졌다. 시공 지연에 따른 책임론이 계속되자 급기야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말 택시요금 현실화 공청회에 참석해 “12월22일까지 2호선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을 그만두겠다”며 기한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왜만 들었는지 모르겠다. 빛은 빛대로 지고, 육만 먹고 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이다. 그동안 왕복 2~4차로로 제한됐던 도로가 차공 전과 같은 6~9

차로로 정상화,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 그런데 당분간 더 참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된 구간에서 불편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노면 파임이나 단차에 따른 차량 손상을 염려하고 있다. 일대 중소상인들은 영업 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보행자들의 통행 문제도 여전하다. 광주시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9월 착공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로 통제된 도로가 대부분 열렸다. 수차레나 연기된 끝에 2027년 말로 미뤄진 개통에 대한 약속도 꼭 이행돼야 한다. 2026년까지 도로, 건축, 전기·신호·통신 공사를 마치고, 이후 약 1년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기듯 무리한 속도전에 매몰돼선 안 된다. 역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길 바란다.

광주의 미래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지금처럼 인명사고 없이 제때 말끔하게 완공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4명 숨진 광주도서관 붕괴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공의 불안전성과 제도의 허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 시스템의 특성과 관리 부실이 맞물려 일어난 참사”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48m 장스팬(Long Span) 트러스와 함께 콘크리트 충전 강관(Concrete Filled Tube·CFT) 내부 용접 결함을 짚었다. 그는 또 고난도 특수 구조물은 건축법상 구조기술사의 현장 검측 등을 거쳐야 하지만 공공발주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역할이 설계 단계에만 국한된 현실을 지적했다. 김의용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단 위원은 해외에서는 기술사가 실제 시공을 가정한 엔지니어링 도면까지 전면 검토한다고 상기시켰다.

광주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구조·건축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설계·시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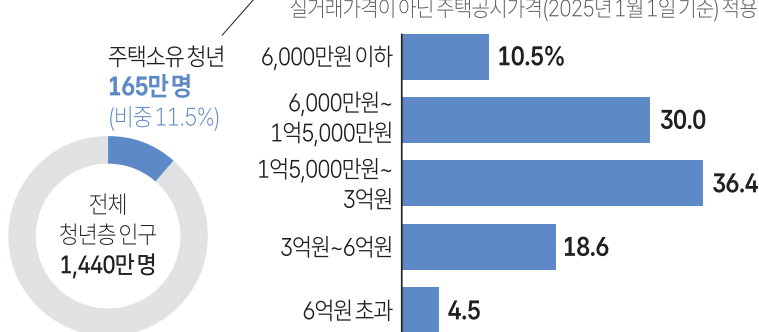
한창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돌출됐다. 특히 특수 공법을 채택했음에도 공공발주라는 이유에서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등으로 안일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느슨한 검사 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도 특수 구조물을 적용한 공공공사에 대해 기술사의 현장 검측 참여를 확대하고, 용접 품질 검증과 가설 하중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대표서관 붕괴 역시 막을 수 있었다. 시공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지 못했다. 총체적 부실로 말미암은 ‘인재(人災)’에 무개가 실리고 있다. 모든 의혹을 낱알이 규명해야 한다. 제도적 사각지대는 개선돼야 한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걸맞는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래픽 뉴스

청년층 주택소유 현황

15~39세, 2024년 기준



연합뉴스 자료: 국가데이터처

청년층 10명 중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가진 청년의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가데이터처는 23월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동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15~39세)은 165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구간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다. ‘6천만원~1억5천만원’은 30.0%, ‘3억원~6억원’은 18.6%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4.5%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연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5천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2천721만원보다 1.9배 높았다. 반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부담은 청년층이 가장 컸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천845만원으로, 중장년층의 1억502만원과 노년층의 5천413만원을 웃돌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